

# 봄물 든 바다, 꽃물 든 태안

## 주꾸미·꽃축제... 봄이 스며든 태안

### 충남

꽃이 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폈다. 저마다 가진 꽃잎의 원색은 산과 들에 생동감을 더한다. 진하지도, 열지도 않은 꽃내음은 계절의 변화를 일깨운다. 가벼워진 공기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다. 청바지에 가벼운 운동화가 어울린다. 음악 장르로 비유한다면 '왠츠'만 한 게 없다. 보다 설렘과 보다 산뜻하다. 봄이다. 그중 4월은 봄의 가운데다. 따사로운 기운은 계절을 가득 채운다.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즐겁다. 마음은 평안하고 안락해진다. '태안(泰安)'이다. 드넓은 바다를 두른 채 꽃이 핀 곳이다. 봄이 스민 바다, 충남 태안을 찾았다.



몽대횃집의 주꾸미 사부사부. 그날 잡은 주꾸미를 바로 상에 올린다.

### 몽산포항 주꾸미 축제 21일~내달 7일

### 졸깃졸깃 꼬들꼬들 알 짝찬 주꾸미 '대풍'

### 소면처럼 후루룩 감기는 맛 일품 실치회

### 세계 튜립 축제 19일~내달 13일

### 화려한 LED 조명 속 200여 종 만개

### 수선화축제 한창...태안 벚꽃 지금이 절정

◇봄철 별미, '주꾸미'와 '실치'=태안은 매년 춘삼월이면 미식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봄철 내내 먹거리가 넘쳐난다. 계절이 아니면 제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모두 봄이 제철이지만, 순서를 나뉘는다면 실치, 주꾸미, 꽃게 순이다. 실치는 통상 3월 중순부터 잡히기 시작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제철로 본다. 맛볼 수 있는 시기는 거의 한 달 정도다. 2-3cm의 크기에 식감이 부드럽고 연해 봄채소와 초고추장, 양념을 버무려 회무침으로 먹는다. 본래 어민들이 배에서 먹던 음식을 내놓은 게 실치 회무침의 시초다. 소면처럼 후루룩 감기는 맛이 일품이다. 너무 얇고 연한 탓일까. 실치는 생명력이 짧아 되도록 직접 현지에서 먹어야 한다. 어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실치가 '녹는 다'라는 표현도 쓴다. 태안의 실치는 태안군 남면 신온리 마검포항으로 향하면 된다. 포구 인근 식당에는 실치회뿐만 아니라 실치 전, 실치 국도 맛볼 수 있다. 5월이 되면 실치 뼈가 굵어져 회 무침은 먹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못 먹는 것은 아니다. 실치를 말려 포를 뜬다. 이를 두고 '뱅어포'라고도 일컫는데, 엄격히는 실치는 뱅어와 다른 어종이다. 실치는 베도라치의 치어인데, 생김새가 같다 보니 어민 사이에서도 통상 '뱅어포'란 말을 쓴다. 포로 말린 실치는 양념을 발라 굵거나 찌먹는다.

30여 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수지(61) 선장 횃집 대표는 "매년 3월 중순이 되면 태안 실치를 맛보기 위해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며 "태안에서는 주민들끼리 '실치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두고 봄을 가늠할 정도"라고 말했다.

태안의 봄맛은 실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태안의 대표 별미 '주꾸미'를 빼놓을 수 없다. 알을 품은 4월부터 5월 초까지 주꾸미 제철로 본다. 태안 주꾸미는 태안군 남면 몽산포 몽산포항이 주산지다. 자그마한 포구인 몽산포는 태안의 주꾸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새벽에 바다로 나선 어선들은 그날 오전 10-11시 사이 돌아오는데, 수산물판매장으로 옮겨진 주꾸미를 바로 맛볼 수 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주꾸미는 알이 짙 차있는 덕에 졸깃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일품이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제 9회 태안 몽산포항 주꾸미 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주꾸미를 찾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맛은 물론이거니와 수확량이 지난해 비해 크게 늘었다. 최근 2년 사이 가물었던 탓에 주꾸미 번식량이 늘어났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몽산포항에서 만난 어민 김명자(62)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주꾸미 어획량이 줄어들어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대풍'이다"며 "정부-태안군의 정책적 지원도 있었고 기후변화로 인해 주꾸미도 번식량이 늘어나면서 많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선화와 튜립으로 물든 '꽃바다'=태안은 봄이 되면 꽃

으로 물든다. 눈 앞으로는 바다까지 펼쳐져 꽃과 바다를 합친 이른바 '꽃바다'가 된다. 사시사철 꽃 축제가 열리는 태안이지만, 봄의 태안은 더욱 계절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다. 태안은 2002년 열렸던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가 시초다. 이후로 태안 송암리, 신온리에서 백합꽃 축제, 수선화 축제 등이 열리며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2009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가 막을 내린 이후, 근 10년 만에 장소를 옮겨 '태안 세계 튜립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튜립 정상회담(WTS, World Tulip Summit)에서 태안 튜립축제가 2015년에 이어 지난해 제 선정되면서 안면도 꽃이 해안공원에서 재탄생하게 됐다. 태안은 이로써 세계 5대 튜립 축제 도시인 호주 캔버라, 터키 이스탄불, 미국 스캐짓 밸리, 인도 스리나가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2018 태안 세계 튜립 축제는 '꽃으로 피어난 바다, 대한민국이 빛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5일간 개최된다.

벤 반잔 텐, 키 코마치, 옐로우 스프링 그린 등 200여 품종의 꽃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튜립축제는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하다. 연중무휴로 빛 축제가 이어진다. 정원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각종 폐기물 등을 조형물로 구축, LED조명을 활용해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미 꽃 축제가 한창인 곳도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수선화 축제(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200)다. 지난 1일 개장해 15일까지 이어진다. 11만㎡ 규모의 행사장에는 '물가에 피는 신선'이라 불리는 수선화 100여 품종이 자리했다. 정원을 셋노랑계 물 들인 수선화는 봄의 전령사를 자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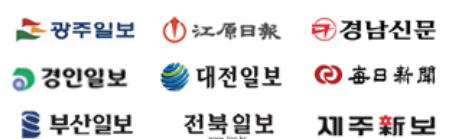
권문선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는 "태안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천혜의 관광지. 매년 봄이 되면 수십 만명의 상춘객들이 태안을 찾아오고 있다"며 "올해는 튜립축제가 자리를 옮겨 성대하게 열리는 데다 주꾸미도 풍년을 맞이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 TIP=태안에서는 길만 잘 들어서면 꽃구경을 2배로 할 수 있다. 몽산포항으로 향할 때 신도리안 안면대로에서 달산포 교차로를 만나게 되는데, 남면사무소 방향인 달산포로로 향하면 소박한 벚꽃터널을 만끽할 수 있다.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지만 3km정도 양옆으로 심어진 벚꽃이 전원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태안은 해양성 기후인 탓에 벚꽃 개화시기가 늦어 4월 중순에서야 만개하니 참고하면 좋다.

◇맛집=몽대횃집  
몽산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횃집. 주꾸미 철이면 그날 새벽 잡은 신선한 주꾸미를 상에 내놓는다. 주꾸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사부사부도 맛있지만 빨갛고 고소한 맛이 나는 주꾸미 볶음도 일품. 싱싱한 자연산회는 이미 일대에서 유명하다.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30분. 연중무휴(충남 태안군 남면 몽대로 495-83 ☎041-672-2254). 주꾸미 사부사부(4인) 6만원 또는 시가. 회 모듬 9만원.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대전일보 글·사진 김대욱 기자  
<협조=태안군청·권문선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평주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네이처월드에서 진행 중인 수선화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꽃을 구경하고 있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1등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